



충성된 삶의 본을 보여 주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신실한 저의 반려자인 아내 마릴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온 자녀들
리처드, 토마스, 벨빈, 노먼 그리고 캐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헨리 블랙가비

하나님의 능력을 봄

1986년, 제가 처음 헨리 블랙가비를 만나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어 제 삶과 목회의 방향을 재정비하실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7년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헨리는 저를 성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저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었는지도 보게 했습니다. 마치 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왜 저는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지나치게 자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일련의 단계를 따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의 기록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공허, 혼돈, 좌절 그리고 불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헨리의 가르침은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헨리는 평범한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극적으로 심지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오늘날의 실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4-5). 이것이 제가 헨리의 가르침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에 적용되는 성서적 메시지였습니다. 헨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은 신나는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길은 그렇게 항상 감격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실패

1984년 신학교에 다니느라 아내와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조지아 주 쿨넷 카운티(애틀랜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비량” 교회 개척자로 부르셨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비량 교회 개척자란 세상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무보수로 교회 개척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과 성장에 관해서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을 위해 제가 일하려고 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구상하는 데 18개월을 보냈습니다. 한 단계씩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저희의 세간살이들은 창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2퍼센트 정도로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났고 수표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빚만 늘어났습니다. 새 교회가 세워질 기미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저희는 집으로 되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비량 교회 개척자의 소명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자비량 교회 개척자의 소명을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유일한 직업은 남침례회 교회학교국의 편집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개척교회가 필요한 이때에 저를 이곳 책상 뒤에다 묶어 놓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헨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성한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지방회에 새 회장으로 제임스 파워즈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까지 8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저는 지금이 자비량 교회 개척자로 자원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방회는 저에게 자원봉사할 기회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저 스스로의 꿈을 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에게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과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시기를 주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3개월 후 저는 교회 개척을 필요로 하는 14개의 지역과 모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목록은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이나 예배 후 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어디어디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열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는 “이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담임 목회자가 있는 6개의 개척 교회와 일곱 번째 개척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하에 가정성경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열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불러 새로운 사명의 후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수행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의 열쇠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은 조지아에서 저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하셨고, 그 결과 저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

했고 저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획하거나 꿈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자 하시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 저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항상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990년 출판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교재를 만들면서 저는 헨리와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헨리와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교재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이 교재의 집필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전국의 기도 용사들과 사역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소그룹으로 이 교재를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전 교회적으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전역의 친구 및 친척들에게 이 교재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모임에서도 이 교재를 함께 공부한 뒤 그들이 경험한 영적 각성 및 새로워진 선교 소명에 대한 확신을 적

어서 보내왔습니다. 교회들은 이 교재를 새신자 훈련에 사용했고 심지어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장 신나는 간증은 오래된 신자들의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 “이 진리를 40년 전에 알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삶과 사역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 “지금이야말로 제게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절정입니다. 저는 제가 하늘의 아버지와 이렇게 가깝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이 교재를 시작한 뒤 제 인생과 마음에 지진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는 도중 하나님의 선교(혹은 사역) 소명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선교전선으로 보내신 방법입니다.”
- “저희 교회는 이제 종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만도 11가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읽고 계신 이 책은 그 교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교회 안에서 깊숙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형식으로 엮어서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내용을 재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에 답을 하려 노력하였고, 자세한 설명과 실례를 덧붙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후, 당신의 삶과 교회에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를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행진

1992년 여름, 헨리는 “기도와 영적 각성부”와 함께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의 신성한 만남: 영적 각성과 부흥의 길」(요단)이라는 교재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헨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남침례회 교회학교국에서의 과도한 업무를 생각할 때,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년 전, 하나님은 제가 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들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의 한발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표징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던 그 주말, 하나님은 제게 이 새로운 과제를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은 이 하나님과의 모험에 동참했습니다. 헨리의 추천에 따라 저는 선교봉사 자원자가 되어 자원 작가 겸 자문가로 그의 사무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평신도 부흥 사역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텍사스에서 비영리 단체를 조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신도 부흥에 관여하고 있었고, 과거에 선교봉사 자원자 한 명을 후원한 바 있었습니다. 각 디렉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했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을 쓰기 위해 교회학교국을 사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무이사로 채용했고 헨리의 사무실에서 영적 부흥의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봉급을 결정한 뒤 “우리가 재정적인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이 교단의 기관을 통해서 개발되었다면 적어도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긴박감을 불어넣으셨고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8개월 만에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년 동안, 우리는 강도가 점점 짙어지는,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례 없는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헨리와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경외심을 갖고 서 있을 따름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막

는 장벽을 허무시고 전례에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사역을 위해 우리 세대에 그분의 능력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신의 어떠한 계획이나 꿈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넘치는 기쁨으로 이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이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강이 당신의 것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클라우드 킹

클라우드 킹과 헨리 블랙가비는 책과 교재 집필 및 개발을 위해 긴밀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성서적 이해 및 실례들은 헨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은 헨리가 마치 당신의 개인적인 상담자 역할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일인칭 접근 방법은 이 책이 당신만을 위한 따뜻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도록 채택된 형식입니다(편집자 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싶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친밀하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이 공부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한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밝히고 또한 당신을 자신이 이미 하고 계신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당신을 사용해서 이루십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좀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생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관계로 옮겨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한번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당신을 부르실 때 응한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 필수 조건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이 책은 당신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 로마서 6:23 —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임

- 로마서 5:8 — 사랑하시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 로마서 10:9-10 —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음
- 로마서 10:13 —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심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전 존재를 바쳐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를 고백(하나님과 동의)하십시오.
- 회개하십시오(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 예수님께 그분의 은혜(우리는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로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 목사님, 집사님 혹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면 누구에게든지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단을 교회 성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무언가를 더 찾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행로에는 커다란 비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다음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들음
-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함
-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
- 당신의 신조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조정됨
-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
-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앎
-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

이런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안내자 겸 격려자로 당신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게 되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 안에서 보여 주신 성경적 원리를 당신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사건들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도록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원리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다가 기도하기 위해 잠깐씩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는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소원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성령님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선생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적 원리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당신에게 알려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이 책에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의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 원리를 소개할 때, 당신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제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원리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

밀하게 교제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권위의 원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당신의 믿음과 실생활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관습(전통)이나 당신의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 등을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 데 적절한 권위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과 관습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옳은지를 항상 시험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당신이나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우주의 하나님)”(엡 3:20)와의 친밀한 관계로 당신을 이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제 인생을 받으셔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지도해 주세요.” 이미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분의 시간에 이루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1장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심을 통한 경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상의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뒤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는 경